

# 출장 보고서

## 1. 출장 목적, 장소, 출장자, 기간

- 목적:

- 2015년도 G-20 어젠다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Think 20 국제회의 참석
- 본 국제회의는 2015년도 G-20의장국인 터키의 핵심 정책연구소인 TEPAV (The Economic Policy Research Foundation of Turkey)와 캐나다의 CIGI (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)가 공동주최하는 국제회의이며, 한국의 KDI를 포함한 주요국 핵심정책연구소에서 참석하였음.

- 주요내용:

- 2015년도 G-20 어젠다와 관련하여 ‘금융통화분야 국제협력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
- 크게 6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 진행

- 장소: 캐나다 오타와

- 출장자: 김영일

- 기간: 5월 2일 - 5월 7일

## 2. 주요 활동사항

\* 5월 2일: 인천공항 출발 - 오타와 도착

### 2015년 5월 3일 (일요일)

환영만찬 및 기조연설 18:30-21:30

발표자: 아담 포즌 (PIIE)

내용: 통화정책과 환율변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

### 2015년 5월 4일 (월요일)

환영사 및 기조연설 08:30-09:20

기조연설: 폴 마틴 (전 캐나다 총리)

내용: 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Institutions: A G20 Priority

세션1: Turkey's G20 Agenda 09:20-11:15

□ 2015년 G20 아젠다는 Implementation, investment, inclusiveness의 세 가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.

○ Implementation과 investment은 2014년 G20 의 합의사항을 구체화 및 실행하는데 의의가 있음.

- 예컨대, implementation의 경우 브리즈번 액션플랜의 성장전략, 금융구조개혁 등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함.

- Investment의 경우 2014년 인프라투자 등의 의제를 개별 국가별 전략을 포함하여 확대·추진하고자 함.

○ 한편, inclusiveness는 저소득·개도국, 중·소기업, 청년층 연령 등을 포괄하여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확산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.

□ 이상의 중점 과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과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

○ 예컨대, 기후변화, 혁신(innovation) 등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도전적

과제를 포괄할 필요성과 T20에서 G20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

세션2: Enhancing Special Drawing Rights in a Reformed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1:30-13:00

- IMF의 SDR(특별인출권)은 1960년대 이후 국제금융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활용실적은 미미한 상황임.
- 이에 미국달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SDR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게 됨.
- SDR의 제한적 역할 또는 한계와 관련한 논의 필요
  - SDR의 역할이 최근까지 아주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.
    - 예컨대, SDR은 1981-2009년 사이에 한번도 배분된 적이 없었음.
    - 수요측면에서도 SDR 형태의 준비금(reserves)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을 수 있음.
- 향후 SDR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 필요
  - 향후 SDR이 공식 준비금(official reserves) 및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안정망으로 역할하도록 SDR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 필요
  - 또한 저개발국의 개발금융을 위한 저비용 자금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할지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  - 이외에도 민간금융시장이 SDR을 자산 및 회계단위(unit of account) 등으로 활용가능한지, 그렇다면 그렇게 허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,
  - 더불어 SDR 바스켓(basket)의 화폐구성을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.

기조연설: 란달 헤닝 (아메리카대) 13:00-14:30

내용: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G20에 대한 논의

세션3: Global Macroeconomic Imbalances and Macroprudential Regulation 14:30-16:00

- 2007~09년 국제금융위기 발생은 시스템위험의 누적을 수반한 거시경제적 불균형에 일부 원인이 있음.
- 국제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.
  -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자산가격은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,
  -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된 비전통적(unconventional)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.
  - 한편,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는 실망스런 자국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단행하기도 하였음.
- 이상과 같이 자국경제 중심의 통화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G-20 국가 등 국제적인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.
- 또한 장기간의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금융불안 위험은 거시건전성규제와 같은 정책수단 사용을 적극 고려하는 계기
- 이상의 배경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가운데 필요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
  - 관련하여 국제경제여건과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국제금융시스템내 시스템위험의 증가에 미친 영향을 논의할 필요
  - 또한 현재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목표 간 충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내 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

세션4: Managing Severe Sovereign Debt Crisis: Current Proposals and

Next Steps 16:15-17:45

- 실질적인 국가채무조정을 위한 국제적 제도의 부재는 국제금융체계의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는데, 국가채무위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
  - 이와 관련하여 최근 IMF는 전통적인 구제(bailouts) 또는 채무조정방식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경우 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제도(lending framework) 개선을 추진
  - 또한 UN에서도 국가채무조정을 위한 다자 법적체계(multilateral legal framework)에 기초한 정리체계 모색
  - 한편 일부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에서는 한층 강화된 공동행동조항(Collective Action Clauses: CAC)이 붙은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,
  - 이상은 국가채무위기 관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시사
  
- 최근 일부 국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심각한 국가채무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 및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할 필요

### 2015년 5월 5일 (화요일)

기조연설 08:30-09:20

기조연설: 로렌스 스킴브리 (캐나다 중앙은행)

내용: 캐나다의 금융규제 경험과 G20에 대한 교훈

세션5: Structural Financial Reforms on Global Finance 09:15-10:45

-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(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: SIFI)에 대한 정리체계 개혁의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추가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
  - 금년도 G-20 정상회의에서는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에 해당하는 TLAC(Total Loss Absorbing Capacity)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됨.
  - 다만, 정부지원에 의한 공적구제(bail-out) 없이 자체 손실부담만에 의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

있는 것으로 보임.

- 글로벌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법·제도의 국가간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음.
-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구조개혁 조치들이 필요할지 논의할 수 있으며, 특히 신흥시장 국가 같이 금융시장이 미성숙한 경우에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

세션6: Addressing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Risks through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11:00-12:30

- 녹색경제(green economy)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위험의 증대는 금융시장 규제개혁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이 될 필요
  - 이상의 관점에서 기후문제 및 지속가능성 이슈는 금융분야 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, 금융규제에 반영할 경우 그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
  - 한편,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규약 등에 의해서도 상기에서 언급한 기후리스크와 금융리스크 간 상호연계를 실질적으로 관리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.

Wrap-Up 세션 12:30-14:00

- 본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
  - 주요 내용은 <https://www.cigionline.org/think20ottawa> 을 참조

\* 5월 6일 - 5월 7일: 오타와 출발 - 인천공항 도착